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이 보도자료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발표되는 관계로 엠바고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11월 12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 12.(월) 오전 9시 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11. 9.(금)	담당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담당과장	김동호 과장(043-870-5410) 최난주 팀장(043-880-5421)	담당자	서라미 전문위원(043-870-5416) 조지영 대리(043-880-5425)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주의해야

-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제품 안전 국제 캠페인 전개 -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8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제품안전인식개선주간*(11.12~11.16.)을 맞아 ‘온라인 제품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편리성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결함제품 유통 가능성이 커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올해 주제는 온라인 제품 안전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4개국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함께 하며, 우리나라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 일원으로 2014년부터 개최한 5회의 캠페인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유통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 우려 증가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럽연합이 위험제품(식품 제외)에 대해 발령한 유럽연합(EU) 경보 중 온라인 판매 제품 비중은 12%를 차지했다.
-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구매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약 8,0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3년간(2015~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유통제품의 ‘위해·위험’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는 총 9,26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건수: (‘15년) 1,992건, (‘16년) 3,146건, (‘17년) 4,128건

- 또한 2018년 상반기(1~6월) 중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리콜한 사례는 총 95건으로, ‘아동·유아용품(26건, 27.4%)’과 ‘화장품(16건, 16.9%)’이 가장 많았다.
-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영유아가 완구 부품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결합보상(리콜)이 대부분이었다.

□ 소비자·사업자 모두 리콜여부 등 제품안전정보 확인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캠페인 대상(소비자·온라인판매업자·온라인판매중개업자)별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해 배포한다.
-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제품 결함여부를 알 수 있는 결합보상(리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외 결합보상(리콜)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 안전인증 표시·사용 주의사항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 후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사고신고(1600-138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모바일앱)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등을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 사업자는 판매 국가별 제품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안전인증*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 국내의 경우 온라인판매업자·온라인판매중개업자는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 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및 어린이제품 판매 시 관련 안전인증 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유관단체(온라인쇼핑협회·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를 통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캠페인 권고사항을 확산하고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 양 기관은 앞으로도 제품 안전 관련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공유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OECD 온라인 유통 제품안전 캠페인 인포그래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과 서라미 전문위원 (☎ 043-870-54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OECD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 캠페인 인포그래픽

□ 소비자 준수사항



□ 온라인판매사업자 준수사항

온라인 판매 제품안전을 위한 판매자 준수사항

온라인 판매 중인 제품, 안전한 제품인가?

1 판매 국가별 제품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 안전인증·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 및 수입자제품 판매 시 관련 인증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제품의 안전정보 및 주의사항, 판매자 신원정보* 등을 판매 국가별 언어로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3 국내의 제품 리콜정보 제공포털을 통해 판매제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안전 문제 발생 시 소비자 및 정부기관에 상세 연락 정보를 제공하고 즉각 대응합니다.

5 안전 문제에 대해 소비자와 직접 효율적으로 소통합니다.

OECD 온라인 제품안전 행태인 공식 메시지를 국내 실정에 맞게 발해·적용하였습니다.

□ 오픈마켓사업자 준수사항

온라인 판매 중개 제품안전을 위한 오픈마켓 사업자 준수사항

플랫폼에 유통 중인 제품, 안전한 제품인가?

1 국내의 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플랫폼 내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플랫폼에 유통되는 결함제품을 확인하고 제거 합니다.

3 판매자가 제품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안전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4 판매자 신원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문의 및 불만 처리를 위해 연락 가능한 판매자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

5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의 제품 안전 정부기관과 상호 협력합니다.

OECD 온라인 제품안전 행태인 공식 메시지를 국내 실정에 맞게 발해·적용하였습니다.